

프랑스 녹색당과
독일 녹색당의
연정 경험과
갈등의 역사 살펴보기

[표 1] 좌파-좌파의 이념적 스펙트럼

좌파		중도	우파	
녹색당				
(녹색)좌파당				
		사민당		
녹색근본주의	지속가능성		환경관리주의	경제성장주의
Deep Green	Ecological Modernist			Light Green

* 자료: 이정필(2009) 재구성

[표 6] 한국의 좌파-녹색의 정당체제

좌파		중도	우파	
녹색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민주통합당		
Deep Green	Ecological Modernist			Light Green

유진숙(배재대 교수)의 두 나라 정당 평가

독일녹색당	프랑스녹색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 요인: 독일의 탈물질주의 확산, 비례대표제, 독일녹색운동의 정당이행 전략(연정 구성, 적극적인 정부 참여 전략)• 녹색의제가 전반적으로 영향력 획득하면서 독일 녹색당이 수십년간 집중적으로 성장• 독일 녹색당은 갈등 전 과정에서 당의 통합 유지는 중요 원칙으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의제는 비교적 사회적으로 확산했지만 녹색당 성장은 상당히 제한적 파편적• 양당 경쟁구도에서 정치세력화하기 보다 순수한 환경정당으로 남으려했던 프랑스 녹색당 전략이 정치적 실패와 주변부화 초래

독일녹색당

- 1980 연방 정당 녹색당 창당, 총선 (1.5%)
-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 통합/기존 정당들의 권력 카르텔에 도전한다는 유일한 공동 목표 하에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 통합

1983 진델핑엔에서 열린 임시 당대회

“성장 위주의 근시안적 사고와 단절”을 핵심으로 선거강령 확정

겸직 금지 원칙, 순환 원칙, 정당강제위임원칙 및 의원 의정비 제한 원칙 등 기초 민주주의에 기초한 녹색당의 정당조직원칙 확립

당내 중앙집권화 및 관료화 경향 차단

의회 활동 중심으로 엘리트집단 고착화 방지

대중당원에 기반한 정당조직이 의회 엘리트에 대한 통제력 유지를 제도화

의회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비판적

- 이러한 원칙은 정당경쟁체계에서의 효율성 및 적응 문제 야기

원칙주의자vs현실주의자 당내 노선 투쟁(독일)

	원칙주의자그룹	현실주의자그룹
주요인물	루돌프 바로	요슈카 피셔
특징	<p>사회운동적 순수성</p> <p>이념적 급진성 주창</p> <p>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전술적 접근 거부</p> <p>근본주의적 반체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고수</p>	<p>의회정치 진입과 현실 권력 장악의 중요성 주장</p> <p>정치 영역으로의 진입이 녹색정치 현실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p>

원칙주의자vs현실주의자 당내 노선 투쟁(독일)

	원칙주의자그룹	현실주의자그룹
의회에 대한 입장	<p>의원단 재량 제한</p> <p>당 공식지도부 의사결정 중시</p>	<p>현실 의회정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의원단 재량권 요구</p> <p>의회주의/당조직 전문화 주장</p>
	<p>연방의회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과정: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을 의원단이 사민당과의 협상에서 변경</p> <p>원칙주의자 당원들이 “녹색당 의원들은 더 이상 녹색당을 대표하지 않는다.”</p> <p>신문 광고</p> <p>순환원칙: 기존의원들의 저항, 인력충원의 문제점 등으로 4년 순환원칙으로 수정, 상당 경우 사문화</p>	

원칙주의자vs현실주의자 당내 노선 투쟁(독일)

	원칙주의자그룹	현실주의자그룹
연정에	타협을 통한 20% 지지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8%의 지지를 얻는 것이 낫다.-켈리	나토해체 당강령을 벗어나 “나토 개혁” 주장, 적록연정 구축을 위한 노선변화 모색
대한 입 장	1994 선거강령: 사민당내 개혁세력과의 연정의지 명확히 제시 연방의회 선거에서 7.3%의 득표, 49명의 연방의원 배출 연방선거에서 사민당의 잠재적 연정세력으로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를 선거전에 활용	

원칙주의자vs현실주의자 당내 노선 투쟁(독일)

	원칙주의자그룹	현실주의자그룹
당내 투쟁 1990 년 대	<p>당 장악 실패</p> <p>비례대표 후보에서 상당수 탈락</p> <p>43인 핵심 생태사회주의자들</p> <p>탈당</p>	<p>요슈카 피셔 중심으로 중도파와 연합, 선거에서 원칙주의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 근본적인 정</p> <p>당구조 개혁 추진</p> <p>1990 선거실패로 당 주도권 장악</p> <p>전면적 조직개혁과 전략 개혁</p>
	<p>19991 전당대회 직후 300여명</p> <p>의 근본주의자들 탈당하여 생태</p> <p>좌파당 창당</p>	<p>1991 당 대회에서 근본적인 정당조직 원칙 수</p> <p>정(순환원칙 폐기, 당대표 직위 신설)</p> <p>기초민주주의의 조직원칙 상당 부분 폐기 또는</p> <p>근본 수정(대의 민주주의 강화)</p>
	<p>녹색당의 전문화 체계적으로 추구</p> <p>직접 민주주의적 조직요소 점차 제거(정당조직 전문화/집중화된 당내 권력 구조)</p>	

원칙주의자vs현실주의자 당내 노선 투쟁(독일)

	원칙주의자그룹	현실주의자그룹
1990 선거 실패 평가	녹색당이 기초민주주의모델과 독자노선에서 멀어지면서 진정성 상실이 이유 연정전략 강력 비판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 원칙 및 연정 전략이 녹색당이 정당체계 적응 방해
1999 코소보 파병 당내 갈등	독일군의 전쟁참여에 반대한다면, 연립정부 붕괴, 집권정당에서 다시 야당으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코소보 파병 관련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당대회 개최 당 지도부 요청으로 경찰력의 삼엄한 엄호와 경비 아래 진행 군대파견 동의 요청 연설 준비 중이던 요슈카 피셔에게 붉은 물감풍선 투척 군대파견 안 가결, 많은 당원들의 탈당	

독일 녹색당의 1차 연정(1998-2002)

- 환경세 도입, 시민권법 개정, 생활파트너제 실행, 핵발전 감축,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 코소보 전쟁참가 등 재무장정책의 외교정책과 사민당과의 타협
- 여러 차례 대립으로 근본주의자들 대부분 탈당
- 당은 현실주의적 노선으로 정리/‘집권과 정부 참여’가 핵심 전략
- 적녹연정을 하기 위해 탈핵 시기를 2022년까지로 사회민주당과 협약
- 반원전 운동단체들의 강한 비판
- 제1차 적녹 연정의 구성과 함께 기존 정당조직 원칙 폐기 또는 수정
- 1999-2002 강령개정 논쟁
- 녹색당 소속 장관 3인의 당정겸직문제, 의원직 포기를 거부하는 등 기존 조항에 공개적인 도전

독일 녹색당의 2기 연정(2002-2005)

- 강령 변화

1980	<p>철저한 비폭력, 풀뿌리 민주주의, 불평등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조</p> <p>정치적 재분배라는 전통적 좌파 입장과 급진자유주의적-코스모폴리탄 정치 주창</p>
2002	<p>“정치적 재분배”→“시장경제적 분배” 방향으로 이동</p> <p>“급진자유주의적-코스모폴리탄 정치” 크게 약화</p> <p>인권보호나 국제평화를 위한 군사적 개입 불가피성</p> <p>대의제 민주주의와 국가체제 필요성 인정</p> <p>불평등이 아닌 차별극복을 위한 사회정의 주창</p>

- 더 이상 '반정당 정당'이 아닌 '정당체계에서의 대안세력'이라는 점 분명히 함
- 2002 연방의회 선거에서 8,6% 득표
- 독일 정당체계 안에 확고히 세력 구축

독일 녹색당의 성과

- 당직과 공직에서 여성할당제 50% 의제화
- 지속가능한 정책, 지속가능한 독일 정책 의제화
- 정치적 의제 선도자 역할에서 집권당으로서 정책적 의제 구현자 역할
- 재생에너지법 제정, 환경세제 도입, - 기후보호를 위한 CO2 감축프로그램 가동
- 연금보험분담금 인하, 원전 추가 건설 종지부, 독일의 탈핵 결정 추동
-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보증금제 시행, 연방자연보호법 개정
- 각 주별로 10%의 면적을 생태축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 환경단체의 단체 소송권 보장시킴
- 광우병 사태 이후 친환경농업 지원, 친환경마크 부여, 소비자권리 강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도입, 동물의 권리 헌법에 보장,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강화
- 혈통 골간의 국적법 개정→독일 출생 외국인에게 국적 허용
- 적.녹연정 시절 선진적 환경정책으로 독일은 환경국가, 기후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프랑스 녹색당

- 1984 녹색당 창당
- 녹색당 창당 이전 이후에도 프랑스 생태정치는 다양한 정치단체들이 생기고 소멸
- 바쉐테르의 독자노선 “생태주의는 연합하지 않을 것이다” 68% 지지
- 1994 바쉐테르는 치열한 내부 갈등으로 녹색당 떠나 ‘독립생태운동’ 창당
- 1993년 녹색당을 떠난 독립파들 ‘독립생태연맹’ 창당
- 2001 사회당과 녹색당 연정(리용, 파리 등 지방 정부 구성)
- 사회당 연대 선거 결과 패배, 당 내부로부터의 공격과 분열
- 시의회 선거를 하면서 녹색당 내분 가속
- 사회당과 연대 반대 그룹: 사회당의 반환경주의 비판(원자력정책, 불법이민자정책, 온실효과에 대한 정책, 선거제도 개혁)
- 연대 찬성그룹: 선거공약협상에서 환경문제 우위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자 주장(사회적 투쟁 강화하면서 세계화 대항 운동지지 입장)